

《내 손으로 가꾸는 유기농 텃밭》

흙, 발효의 마법이 도심까지 퍼지기를 기원하는 생명의 말

글_ 임동헌

사단법인체인 전국귀농운동본부가 설립된 때는 10년 전인 1996년의 일이다. 전국귀농운동본부가 설립된 지 1년이 지난 1997년 대한민국은 IMF 사태를 맞으며 건국 이후 최대의 경제적 위기를 맞았고 서민들은 장롱 속의 금반지를 들고 나가 외환 위기를 극복하는데 써달라며 조건 없이

맡겼다.

IMF 사태 이후 10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우리가 목도하는 것은 양극화 현상인데, 이 양극화의 시발점이 실제로는 IMF 사태라는 것은 말할 나위 없는 진실이다. 나라 전체로 볼 때는 ‘국민적 힘’으로 IMF 사태를 극복하는데 성공했지만 그 성공의 과실은 대부분 가진 자들에게 돌아갔고, 그때 ‘IMF 사태 극복’ 캠페인에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폐물을 들고 동참했던 서민들은 다시 찾아온 성장 동력 앞에 무기력한 존재가 되어 버렸다. 노숙자들의 대부분이 여전히 노숙의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고, 고용 형태 역시 그때보다 훨씬 낙후된 정규직과 임시직의 양극단으로 ‘정착’ 돼 가고 있는 현실이다.

돌이켜보면, 그때 많은 사람들은 도회지에서의 삶에 실패하고 거리를 떠돌았다. 그들 중 일부는 고향을 향해 허청걸음을 놓았는데, 당시 전국귀농운동본부가 한 역할을 꽤 의미 있는 것이었다. 1996년에는 한 기당 귀농학교의 수료생이 20명 내외에 불과했으나 1997년에는 4,50명으로 늘기 시작했고 이후 전국귀농운동본부의 프로그램에는 살림강좌, 생태귀농학교, 귀농전문학교 등의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설립 초기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IMF 사태가 전국귀농운동본부의 설립 취지를 살리고 동력을 전달하는 데 일조했음은 물론이다. 그때 전국귀농운동본부의 1차적 목표는 환경생태계의 위기를 알리는 동시에 도시 젊은이들로 하여금 농촌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게 하는 것이었고, 2차적 목표는 귀농한 사람들이 생명의 텃밭을 일구는데 성공하도록 돕는 것이었다.

그들의 방식은 일부 성공했고, 일부 실패했다. 전국귀농운동본부의 가열찬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사나 짓자’는 심사로 귀농했던 사람들의 상당수가 땅과의 싸움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도회지로 흘러나왔던 것이다. 말하자면 그것은, 전국귀농운동본부가 귀농에 초점을 맞



● 이 글을 쓴 임동헌은

1985년 단편 <묘약을 지으며>를 발표하며 등단했다. <민통선 사람들> <기억의 집> <편지를 읽는 시간> 등의 소설, <길에서 시와 소설을 만나다> <가족식사> 등의 산문집, <풍경> <가족> <아가에게> <별> 등의 사진에세이집을 썼다. 일간지 기자를 거쳐 <출판저널> 주관을 지냈으며, 현재 한양여대 문예창작과 겸임교수로 있다.

춘 정책의 한계이기도 했다. 농촌과 도시 모두에서 생태 농법을 계몽하기에는, 그러니까 쌍방향 정책을 펴기에는 아직 여러 조건이 갖춰져 있지 않았던 것이다.

내 앞에는 지금 농부 두 사람이 집필하고 전국귀농운동본부가 엮은 《내 손으로 가꾸는 유기농 텃밭》이라는 좀 이색적인 책 한 권이 놓여 있다. 감각적인 디자인의 요즘 책들과 달리 이 책의 표지에는 오이와 깻잎, 생강, 상추, 고추 등속의 농작물 사진들이 등성등성 실려 있다. 한마디로 촌스럽기 그지없다. 하지만 본문을 열면 그곳에서는 흙냄새가 풍긴다. 뿌인가. 거름 냄새와 똥냄새가 풍긴다. 전국귀농운동본부의 공동대표이면서 도시농업위원회를 맡고 있는 안병덕 씨의 서문 한 대목을 보면 왜 이런 책이 나와야 하는가가 금세 읽혀진다.

“사람은 흙과 더불어, 이웃과 더불어 살아야 하는 자연의 일부입니다. 그럼에도 오늘날의 도시는 농업을 여러 산업 중의 하나로만 보고 농업을 도시에서 추방해 버렸습니다. 그 결과 도시는 그저 먹고 쓰고 버리는 반생태적인 도시가 되었고 도시인은 자신의 건강까지 위협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전국귀농운동본부가 생태농법을 도시 쪽으로도 확대하려는 기미를 감지할 수 있다. 맨땅을 밟기조차 힘든 도회지 사람들을 상대로 흙과 거름과 똥이 더불어 사는 농법을 퍼뜨리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답은 의외로 간단한 데서 나온다.

《내 손으로 가꾸는 유기농 텃밭》은 일단 수확량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예컨대, 아파트의 베란다에서도 얼마든지 유기농법이 가능하다는 것을 설명하는데 그 방법과 순서가 일목요연하게 제시된다. 첫째 완숙퇴비와 액비 등의 경우는 사단법인 흙살림이나 유기농업협회를 통해 구매하고, 마사토와 모래는 화분집에서 구매한다. 두 번째는 베란다 맨 아래에 잔돌을 깔고, 마사토나 모래를 깎아 다음 거름을 섞은 흙을 덮는다. 밭의 깊이는 재배하려는 대상에 따라 다르다. 상추의 경우는 30센티미터, 당근처럼 뿌리를 깊이내리는 채소를 심을 때는 50센티미터를 유지하면 되는데 밭의 둘레는 나무 판자 혹은 스티로폼을 이용한다.

위와 같은 텃밭 만들기는 사실 공식대로 따라 하면 되는 일, 중요한 것은 이를 통해 우리가 어떤 의미를 받아들이느냐에 있다. 저자들은 그 의미를 순환에서 찾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는 것이 똥이다.

우리의 땅이 척박해진 이유 중의 하나는 똥이 수세식 변기를 통해 정화되어 멀리 바다에 버려지게 된 것이다. 제대로 된 거름의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따르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 결과 흙은 똥 대신 화학 비료와 항생제로 오염된 가축의 똥을 먹어야 할 처지가 돼버렸고, 사람 역시 오염된 땅에서 생산된 작물을 먹어야 하는 처지가 돼버렸다. 이쯤 되면 사람은 흙-똥-곡식의 순환 고리 속에 놓여 있을 때 행복한 섭생을 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발효의 문제가 등장한다. 발효란 부패와 지근거리에 있다. 썩되, 이롭게 썩으면 발효이고 해롭게 썩으면 부패라는 것은 상식. 날것일 때는 독이 있어도 발효가 되면 그 개체는 놀랍게도 이로운 개체로 변신한다. 발효된 똥은 흙을 기름지게 하고, 그 메커니즘을 이어받아 발효된 땅은 곡식을 자라게 한다. 그렇게 정상적으로 자란 곡식을 먹은 사람들은 이른바 ‘좋은 똥’을 누어 다시 흙 속으로 돌려보낸다. 이것은 거의 마법에 가까운 순환 기제이다. 생것일 때는 배타성을 띠는 존재들이 발효된 이후에는 자신을 희생시켜 다른 대상의 생명을 키우는 일에 스며든다.

그러므로 《내 손으로 가꾸는 유기농 텃밭》에서 유심히 보아야 할 대목은 이 책의 앞머리에 배치된 1부 ‘농사란 무엇인가’와 2부 ‘작물은 어떻게 자라는가’이다. 1,2부를 합쳐 봐야 50쪽에 불과하지만 여기에는 현역 농부 두 사람이 역설한, 흙을 기저로 한 생태 농법의 진수가 녹아 있다. 이 부분에 공감할 때 상추 무 배추 시금치를 재배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우리는 지금 양극화의 해법에 대해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마땅한 해법은 정치권에서도 찾지 못하는 난제 중의 난제이다. 왜냐하면 IMF 사태가 수습돼 갈 때 양극화의 조짐을 뻔히 지켜보면서도 예방책을 만들지 않은 것이 정치 집단이기 때문이다. 그 예방책의 일단이 귀농한 사람들이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펴는 것이었을 터인데 불행하게도 정책 담당자들은 지금 한 사단법단체의 생명 운동에 박수를 치는 입장이 되고 말았다. 《내 손으로 가꾸는 유기농 텃밭》에서 함의를 찾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